

양계 불황에도 웃을 수 있는 지부로

회원들 생산지수 평균 370



▲ 월례회의를 마치고 사무실 앞에서



▲ 회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최길영 지부장

여름철 혹서기를 앞두고 화성육계지부(지부장 최길영) 회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4월 27일 기자가 찾은 화성육계지부 사무실에는 육계불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회원들의 얼굴은 큰 걱정이 없어 보였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따라 병아리 입추를 준비하는 농가들이 많은 관계로 절반의 회원들만 참석하였지만 회의는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서로간의 성적향상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계열화사업의 발전방안과 정부나 본회에 요구사항 등을 털어놓았다.

화성육계지부 회원들은 19농가로 사육규모는 100여만수에



▲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야유회 모습



▲ 국군장병을 위한 후원활동

이른다. 화성육계지부를 이끌고 있는 최길영 지부장은 화성지역의 터줏대감이다. 36년간 한 자리에서 육계업을 해 오고 있으며 3년 전에는 시설현대화자금을 통해 최신식 무창계사 4동(8만수)의 닭을 사육하고 있다. 최길영 지부장은 국립축산과학원, 학교 등과 연계하여 시험농장을 자처하면서 많은 생산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회원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최 지부장이 해야 할 역할중 하나다.

화성에서 육계를 하는 농가는 약 170여 농가로 파악되고 있으나 규모가 다양하고 지역이 넓어 생각처럼 회원들을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한번 회원으로 들어오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만남 자체가 즐겁다.

최 지부장은 지난 5년 사이에 회원들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생산지수가 평균 360~370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시·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매년 농가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동안 니플, 급이기, 열풍기, 왕겨, 생균제, 방역기, 약취제거, 정수사업 등을 통해 농가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총무활동을 하는 최영규 사장과도 호흡을 맞추며 일궈낸 성과이다.

회원들은 농가들의 권익을 위해 계근소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차량이 예전보다 크기가 넓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계근

이 되지 않을 경우 감량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계열화사업의 개선방안으로 병아리 입추는 계열사나 유통에서 비용부담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하 시 상차비용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병아리 입추 비용만은 계열사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병아리 품질과 관련해서 종계장 환경과 시설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화성지역에도 육계사보다 못한 시설에서 종계가 자라고 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전체 병아리 품질향상을 위해 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비품에 대해서도 농가에게는 가격을 깎고 업체들은 그것을 다시 가공하여 잇속을 챙기는 경향에 대해서도 시정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본회에 대한 요구사항도 언급했는데 대한양계협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친환경축산, HACCP, 허가제 등 농가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기대했다.

최길영 지부장은 현재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감사로 활약하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자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일도 맡고 있다. 화성지역 육계농가들이 회원으로 입회하여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